

소설 『미망』 속 개성 한옥 고찰

A study on the Gae-sung *Han-ok* of in the 『Mi-mang』 of novel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조 정 식

Cho, Jeong-Sik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han-ok* in Gae-sung, which was antique and traditional cit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se were located in Gae-sung in North Korea hence direct investigate is not possible. Since there was no comprehensive study of Gaeseong *han-ok*, we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fragmentary records and memory of Gaeseong people. In accorda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s surveys and sketches as well as how they were illustrated in the novel. Hark back to the peoples' thought of the *han-ok* years when they ran the survey in 1920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houses so various classes in Mi-Mang. Jeon Cheo-man's house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rich family in Gae-sung, Jeon Je-seong(Jeon's 2nd son)'s house was located in *Si-jeon*(government licensed-markets) near by the South gate. In particular, Jeon Yi-seong(Jeon's 3rd son)'s house was in rural areas. He managed on immense ginseng field and worker's houses. Hae-ju's house was a small house off the track. Second, the outer house is low and the main house is high and neat.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it corresponded to sketches recorded by architects, such as neat housekeeping, long stones used for various purposes, invisible flat gates, the appearance of old and old houses and the composition of each room.

키워드 : 개성 한옥, 미망, 박완서, 긴돌, 도가

Keywords : Gae-sung *Han-ok*, Mi-mang, Park Wan-seo, Gin-dol, Ware House

1. 서론

개성(開城)은 고려의 황도에서 조선의 지방 도시로 위상이 변모하였지만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조선 개국 직후 개성의 건축가들은 서울에 궁궐을 짓고, 유교의 성전인 문묘를 건설했으며, 서울의 가기(家基)를 만들었다. 개성의 장랑(長廊)과 고대 광실은 한양으로 옮겨져, 조선 초기 한양 건설은 상당 부분 개성을 참고한 것이다. 이후 서울의 경관은 가구(架構)의 완결성과 곡선이 강조된 팔각으로 바뀌었지만, 개성은 20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맞배가구를 기본으로 하는 여말선초의 구옥(舊屋)이 상당수 남아있어

서 과거의 건축적 면모가 유지되어 왔다.¹⁾

하지만, 오랫동안 남아 있던 전통적인 한옥들은 한국전쟁 이후 대대적인 개보수로 인하여 과거의 모습을 상실하여 현재로서는 근대기의 개성 한옥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²⁾

1) 1932년 개성 한옥을 조사한 노무라의 한옥분포도를 보면 고려시대 구옥이 상당히 남아 있다.(野村孝文, 『開城雜記(五)』, 『朝鮮と建築』, 第十二輯, 第二號, 朝鮮建築會, 1933 圖18~20) 또한 20세기 초반에 촬영된 개성 남대문 대로 주변에는 맞배지붕이 연속하여 이어진 경관을 볼 수 있다.

2)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거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북이 단절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새터민들의 구술에 의존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살림집 연구는 1960년대 이종묵, 황철산의 민속학 측면의 조사와 1980년대 리화선, 이재선, 김내창, 신희창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개성 한옥군락은 1975년 보전거리로 지정된 이후 민속여관으로 리모델링 후 1989년 개관하였다. 당시 독일 차관을 빌어 진행된 이 사업에서 200여채 가까이 남아있었던 개성 한옥 사진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거 건축에 관한 연구 동향은 이왕기, 『북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uos.ac.kr

이 논문은 2020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표 1. 개성 한옥에 관한 기존 연구

저자	연구제목	내용
콘 와지로 (今和次郎, 1888-1973) 	『1920년대 조선 민가와 생활에 대한 소묘-콘 와지로 필드 노트』, 서울역사박물관 간행, 2017	- 도쿄 공학원대학 도서관 콘 와지로 컬렉션 중 조선 민가 필드 노트 모음 - 남대문 인근 포목점, 인삼상회 등 스케치와 함께 생생한 설명 - 고현학(考現學)의 창시자인 그의 스케치는 건축 외에 풍속세태, 의복, 생활도구까지 포함하고 있음.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1924, 조선총독부	- 조사의 방향과 목적은 일본의 민가와 조선 가옥의 관계를 정리하여 관련성을 밝히는 것임
노무라 요시후미 (野村孝文, 1907-1986) 	『朝鮮と建築』 「開城雜記」 4·5회, 1933	- 개성 한옥 조사 내용을 『朝鮮と建築』에 연재(1932.9~1933.2) - 5회 연재 중 4회·5회에 개성 한옥 스케치와 사진 게재 - 온돌, 굴뚝,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입면을 강조 - 벽체가 그대로 가로경관이 되는 도시형 한옥과 에도시대 일본 민가의 유사성 설명 - 남대문 십자가 주변의 필지에 고려·조선·양옥의 분포도 표시 - 구옥의 포작, 마당에 간 전돌 등은 중국의 영향으로 판단
	『朝鮮の民家(風土・空間・意匠)』, 학예출판사, 1981.	- 1930년대 본인이 조사한 내용과 이후 한국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보완하여 출간
김윤기(金允基, 1904-1979) 건설부 장관	『朝鮮住家に就いて』, 김윤기 와세대 대학 학부 졸업 논문, 1927	- 개성 도심과 변두리 농촌 지역 개성 한옥 조사 평면도 - 조사 평면도는 노무라의 저서에도 삽입 - 조사당시 마중기(건설청부업자)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
김홍식	『개성한옥의 가치와 보존방향』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성과보고서』, 경기도문화재단, 2012	- 한국 민가의 변화과정 속에서 경기도 지역, 도시형 주택으로서의 개성 한옥 설명
이경미	『상업도시 개성의 주거(住居)와 시전(市廛)』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성과보고서』, 경기도문화재단, 2012	- 경제사·상업사 분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업도시 개성 설명 - 삼포주의 가옥 규모, 가구 수, 입지 등을 분석 -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재가를 한양 시전의 주택과 연결
김태영	『개성지역 한옥군락의 분포와 배치』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성과보고서』, 경기도문화재단, 2012	- 고려부터 조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성한옥군락지 형성과 분포현황 소개. - 개성한옥의 입지를 천과 도로에 면한 사례로 구분
남창근	『개성 지역 전통한옥의 배치와 평면 고찰』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성과보고서』, 경기도문화재단, 2012	- 기존 개성한옥조사 내용과 1999년 경기도 한옥조사 내용과 함께 ‘경기도’ ‘상업도시’의 ‘주거’로서 개성 한옥 특성 강조 - 일제강점기 조사된 개성 한옥 내용을 상세히 분석
	『고려의 수도 개성의 도시구조와 개성한옥의 역사』 『개성한옥』, 경기도문화재단, 2021	- 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성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개성 한옥의 변화 설명 - 개성 한옥은 서울·경기와 같은 문화권이므로 더 폭넓게 접근할 필요 제시
김석현	『개성한옥의 건축적 특징』 『개성한옥』, 경기도문화재단, 2021	- 일제강점기 조사된 개성 한옥을 입면과 평면형식으로 구분 - 도시형 가옥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개성 한옥을 필지 분할과 함께 설명
강영환	『북한의 옛집 3: 그 기억과 재생』 (황해도편), 아담북스, 2012	- 새터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들이 실제 거주하였던 개성 한옥을 도면으로 기록화 - 구술자들의 기억과 해방 이후 북한학자들의 조사 내용 함께 소개
과학사진흥합 출판사편집부	『조선의 민속전통』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주거생활과 풍습, 가족관계와 함께 주거 공간을 설명 - 도시형 한옥의 시작이자 마루가 있는 상한선으로 개성 설정
리종묵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기 중엽~2-세기 초엽, 『문화유산』 5호, 1960	- 용마루를 기준으로 방이 몇 줄인가로 구분 - 용마루를 기준으로 하면 구조, 지붕 모양까지 설명할 수 있음 - 개성은 대청을 두는 기준선으로 설정함 - 개성을 비롯하여 황해도 남부지역의 파리집은 부유한 계층의 주거로 판단
	『과거 우리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 『문화유산』 6호, 1961	- 민속학자의 관점에서 방의 이용과 그 설비를 기준으로 ①살림방과 부엌, ②경리공간으로 나누어 설명 - 각 공간별로 필요한 설비시설과 문과 창문의 유형이 구분됨
황철산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유형과 그 발전』, 『고고민속』 3호, 1965	-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해 변질된 주장을 분쇄하는 것이 필요 - 평면을 기준으로 외통과 양통으로 구분 - 입면은 기단과 장식이 되는 문의 창호 형태, 툇마루 유무로 구분
Yoonchun Jung(정운천)	『Wajiro Kon's Architectural Theor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inka and Its Limitations, 1923-24』, Architectural Research 16(3):101-107, Sep. 2014	- 콘 와지로의 민가 현장 조사 방법과 생생한 현장 노트에 초점 - 온돌 구조에 관심을 두고 그 영향을 분석

더구나 지금으로서는 개성의 건축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개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발언, 1994/ 강영환, 『북한의 옛집』, 아담북스, 2012 내용을 참고

개성한옥을 조사하고 자료를 남긴 인물로는 1920~30년대 콘 와지로(今和次郎), 요시후미(野村孝文)와 김윤기 박사가 있었다. 콘 와지로는 1922년 9월 개성 한옥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朝鮮

部落調査特別報告』로 발표하였고, 노무라 요시후미는 1930년대 2박 3일간 개성 한옥을 조사하고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개성잡기(開城雜記)」로 연재하였다.

김윤기 박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큰 와지로 선생과 함께 1925년 개성을 조사한 경험이 있고, 당시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성 고려공업회 순회강연의 일환으로 ‘개성 건축’을 주제로 강연도 하였다.³⁾

한편, 개성 출신 작가인 박완서는 소설 『미망』에서 근대전환기의 개성 한옥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박완서는 소설 속 인물과 사건들은 본인이 어린 시절에 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박완서의 소설들은 이미 1970년대 서울의 주거 공간과 경관을 가늠하는 주요한 자료이다.⁴⁾

실제 『미망』 속 전이성의 시골집은 개성의 중심부가 아닌 개풍에 있었던 박완서의 집과 같은 형태이고 부자 상인들이 사는 주거지, 포목점의 위치 등은 개성에 실제 위치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완서가 묘사한 개성 한옥들은 위에서 언급한 건축가들의 건축 조사가 단편적인 건축내용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의 개성 생활과 한옥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속의 한옥 묘사는 ‘개인’의 심상을 그리는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결국 개성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실제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개성에서 성장기를 보낸 박완서가 소설 속에서 묘사한 개성 한옥은 매우 사실적이다.⁵⁾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내용, 즉 소설 속에 묘

사된 한옥의 내용과 건축가들이 동시기에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 보는 것은 개성 한옥을 탐구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소설 속에 묘사된 한옥의 모습과 개성 한옥에 대한 건축가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 전환기 개성 한옥의 총체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건축가들에 의해 조사된 자료의 수량이 적고 소설 속의 한옥이 가상인 점은 분명한 한계이지만, 문장으로 묘사된 개성 한옥에 대하여 공간적 구성과 건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성 한옥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소설 『미망』 속 배경으로서의 한옥⁶⁾

송도의 전설적인 거부 전씨가 삼대의 이야기를 담은 『미망』⁷⁾에는 개성, 서울, 일본 동경을 배경으로 총 22채의 살림집이 등장한다. 그중 개성의 살림집은 총 15채로, 1888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개성의 여러 계층의 살림집과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전처처럼 동해랑에 위치한 부유한 상인의 살림집, 삼포 옆 부농의 살림집, 시전과 도가 근처의 점방이 있는 집과 빈한한 계층의 집 등 다양한 규모의 주거와 시설들이 등장한다.

필자는 소설 속 15채의 개성 살림집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도에 표기하였다. 박완서 작가가 묘사한 인물들의 동선과 주변 경관에 대한 설명 및 지명을 찾아 확인한 것이다. <표 2>

3) 동아일보 1927년 7월 27일 4면 기사

4)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서울 주거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0(3), 2014.3: 191-201/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2), 2006.2: 63-75
김재관·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5) 박완서의 소설 미망에는 살림집으로서의 개성 한옥뿐만 아니라, 1900년대 이후 급변하는 개성 도심부와 변두리 경관의 변화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소설 속 배경을 건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박철수(각주 4)와 정윤천이 있다. 정윤천은 도시의 경관을 텍스트로 보고 분석하였다. 소설 속 묘사된 내용을 가지고 당시 건축과 경관을 해석하였다.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the Seductive Domestic Spaces Described in Narratives: Yi Sang's The Wings (1936) and Inho Choe's Another Man's Room (1971)/ Seoulites' Daily Living Spaces Reflected in Park Tae-won's Novels of the 1930s/ Wajiro Kon's Architectural Theor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inka and Its Limitations, 19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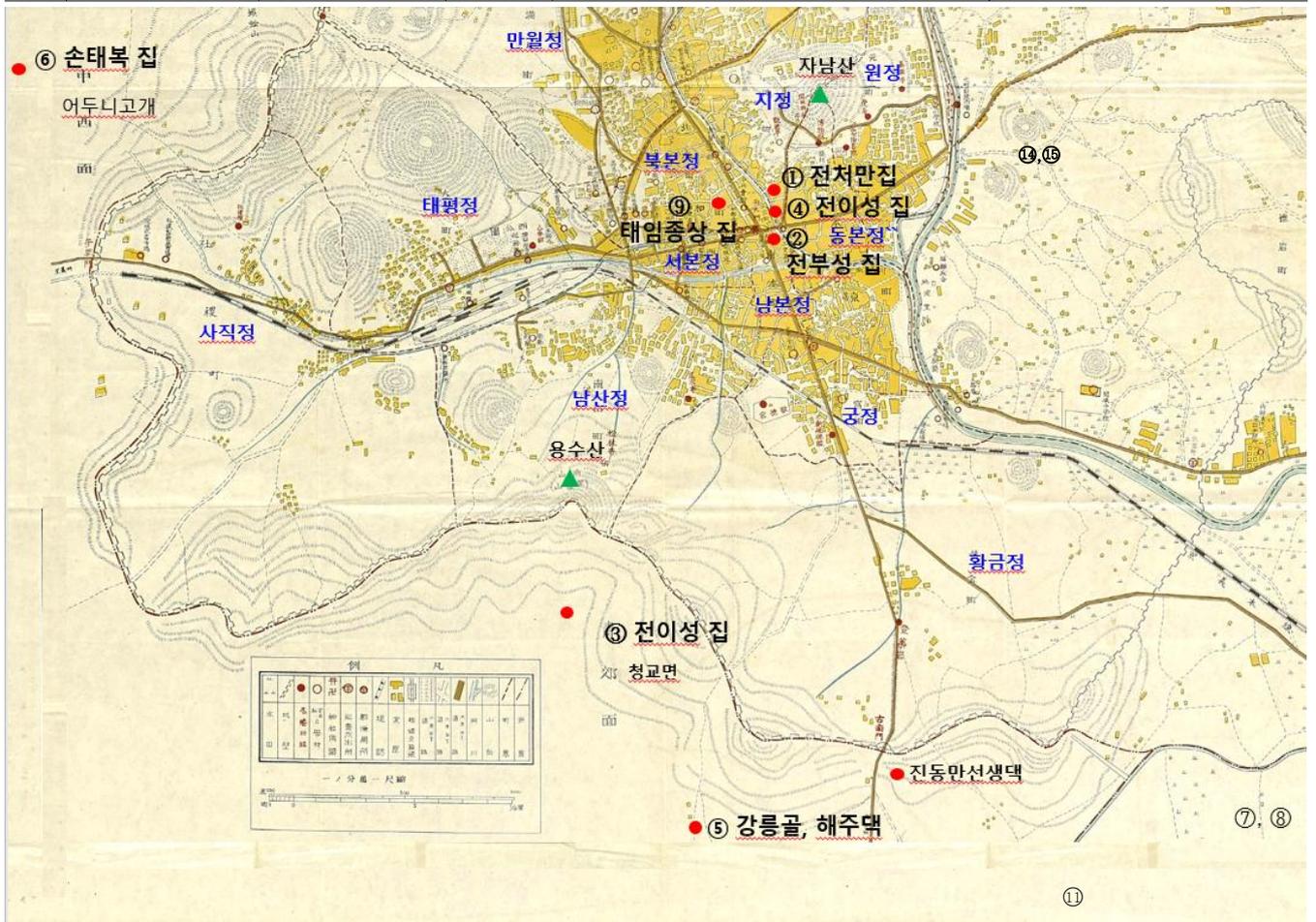
6) 필자는 소설의 특성상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성을 배경으로 한 작품 중에서 한옥의 묘사가 기존 조사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개성이라는 지역에 기반한 작가의 작의가 분명한 작품인 『미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박완서의 초기 작품은 작가 자신이 경험했던 현대사에의 굽직한 사건들을 실재했던 장소를 배경으로 서술하였고, 이는 리얼리즘 세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개성을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의 소설 『미망』은 여러 번 발간되었는데, 본 연구는 1996년 세계사에서 출간한 박완서 소설전집 12·13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7) 소설의 내용으로 역사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진척되었다. 최명희의 『혼불』, 박경리의 『토지』, 박완서의 『미망』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 개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창원, 「근대 開城의 지리적 배치와 開城商人的 탄생」, 『국제어문학회』 64, 한국역사연구회, 2015, 33-53쪽/ 권혁래, 「고전문학에 그려진 개성상인 형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64집, 2018.8, 179-217쪽/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여성문학연구』 45권 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59-299쪽/ 정혜영, 『통일식당 개성발상』, 돌너, 2021/ 김미혜·정혜경, 「소설 『미망』 속 19세기 말 개성의 음식 문화」,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21권 4호, 2011, 장지연, 「개성 기행문을 통해 본 16세기 정치개혁과 개성 이미지의 변화」, 서울학연구 2022 등이 있다.

44 논문

표 2. 『미망』 속 다양한 계층의 살림집 위치 추정(지도출처: 「개성부 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위 작성)

연번	명칭	위치(소설 속 명칭)	시기	특징	참고 쪽수
①	전처만 집	동해랑	1893~1893	조선 후기 부상의 집 개성 시전 골목 내	상 9~10,13~17, 102, 105, 135, 186, 190~191, 243~245, 248~249, 258, 287, 345~348, 355
②	전부성 집	시전거리	1893~	전과 살림집이 붙어있는 전형적인 개성 시전의 재가	상 27
③	전이성 셋골집	셋골	1893~	시골 부농의 집 앞에 노비들의 거처와 삼포를 거느림	상 57~60, 379
④	전이성 대처(大處)집	숫전골	1910~	신흥 부호의 집, 북부 동해랑 첫골	상 295
⑤	해주댁 집	강릉골	1893~	시골 빈농의 외딴 집	상 60, 235, 277~278, 283~284
⑥	손태복 집	어두니 고개 밖 개성오산리	1893~	머릿방 아씨 친정어자 태임의 외가, 시골 부농의 집	상 119, 150, 152, 159, 196
⑦	빈집 1	셋골 끝집		재득(태남 父)죽은 곳, 시골 외딴 집	상 417~418
⑧	이문수 집	셋골, 덕물산 근처		종상의 父 이생원 집 개성 시골 반가의 집	상
⑨	태임, 종상 집	서해랑	1901~	개성 내 신흥 부유 계층의 집	상 351, 356~358, 385 하 43, 51, 126
⑩	배서방 집	샘밭	1884~1906	시골 중류층의 집	상 204
⑪	과수댁	여우골	1893~	태남이 태어난 곳, 외딴 집 시골 중류층의 집	상 161~163, 331
⑫	재환이 집	샘밭		시골 소농의 집	상 387
⑬	진동열 선생 집	고남문 밖	1904~	도시 하층민의 집	하 65
⑭	황도중 집	시전부근, 동해랑		조선 후기 개성 시내 부상의 집	하 116
⑮	진도중 집	시전부근	1893~	조선 후기 개성 시내 부상의 집	상 32



소설 속 인물과 배경은 가상이지만, 박완서 작가 자신이 분명한 전달자로서 개성의 한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신뢰성이 높다. 특히 인물들의 동선과 함께 묘사하는 개성의 경관은 매우 상세하다.

대부분의 한옥은 남대문 주변에 있지만, 청교와 고려 6대 성종의 무덤이 있는 강릉골, 전처만이 어린 시절 생활했던 어두니고개처럼 도심 밖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는 15채의 개성 살림집 중에서도 살림집의 대략적인 특징과 계층별 구분이 가능한 6채를 추려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전처만, 전이성, 전부성의 집과 훗날 서해랑으로 살림을 나는 태임과 종상부부의 집은 개성 시가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그중 전부성의 집은 포목상을 겸하는 시전 재가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청교면 지역에 있었던 전이성의 집은 주변에 넓은 삼포가 있다. 청교면 인근의 강릉골 해주댁의 집과 옛 남문 밖에 위치한 진동만 선생댁은 빈한한 계층의 살림집 사례이다.

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서는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과 기존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 외세·일제·서양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응하는 개성사람들의 도전과 수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건축공간의 변화와 개성 시내 경관의 변화도 잘 전달하고 있다.

3. 미망 속 개성 살림집

3-1. 거상(巨商) 전처만의 집

전처만은 개성의 삼포와 청포전을 운영하는 거상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⁸⁾ 전국적으로 차인(差人)⁹⁾을 거느린 도방이었으며, 여러 번 북경을 드나들며 인삼과 피물로 청과 밀무역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 그의 집은 19세기 개성 북부 동해랑에 위치하였는데 동해랑은 개성 시내의 남대문을 중심으로 동쪽의 동네를 말하며,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였다.¹⁰⁾ 필자는

8) 개성의 갑부로 알려진 공성학, 김정호, 손봉상, 김원배 등은 집안의 조부 혹은 부친이 모두 현종~철종 연간 자수성가한 덕에 1900년대까지 부를 유지하여 이름난 인물들이다. 전처만의 재산도 이 시기 올려진 것인데, 박완서는 이 같은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9) 차인(差人)과 차인(借人)은 다르다. 전자는 지방행상 혹은 금전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후자는 보부상보다는 자본력이 커서 말을 이용하여 집을 운반하는 상인을 뜻한다. 주객(主客)이라고도 한다. (조병찬, 『한국시장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124~125쪽)

10) 개성식 한적식집 ‘용수산’을 운영했던 최상욱(1928-2015)도 고급주택

외양부 묘사를 시작으로 안채에 이르기까지 동선에 따라 전처만의 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처만의 집은 보이는 외부는 소박하지만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여 전체적으로 외빈내부(外貧內富)의 구성이었는데, 이것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실속을 중하게 여기고 외화치레를 가버이 여기는 개성 사람다움은 그들의 집꾸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대에 수만금을 모은 것으로 소문난 부상 전처만 영감의 집 역시 그러하였다.(『미망』 상, 9쪽)

북부 동해랑은 예로부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기로 소문난 동네였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외빈내부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바깥채는 초라할 정도로 낮은 초가지붕이고 안채는 드높고 번들대는 기와집이었다.**(상, 234쪽)



그림 1. 눈에 띄이지 않는 대문(출처: 조선총독부, 『조선부락조사보고서』, 1924 도판 28 상)

외빈내부는 실속을 중시하는 개성사람들의 됃됨이를 건축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전처만의 집도 대문채는 <그림 1>과 같이 초가지붕인데다가 그마저도 대로에서 들어가 있고 연결된 담장과 충분히 구분되지 않아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대문 밖으로는 훗날 전처만의 손녀 태임의 혼례 시, 차일을 치며 신랑대기소를 만들 정도로 대문 밖에는 여유가 있었다.

부잣집답게 사랑채는 안채와 독립되어 있었고 사랑채 내에서도 윗사랑과 아랫사랑을 구분하면서 별도의 행랑채까지 갖추고 있었다. 전처만은 안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나막신을 신었다. 기침과 함께 발걸음 소리로 안채에 들어갈 것임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사랑채 방 안에는 6자가 넘는 돈궤를 두었으니 방의 크기도 8자는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처만의 사랑채

지 동해랑을 언급하였다. “동해랑은 개성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였다. 구두를 신고 걸으면 또각또각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골목길에 우리 집이 있었다.”(최상욱, 『사랑만한 음식없고 정성만한 양념없다』, 문예랑, 1997/ <https://blog.naver.com/yongsusanfnc>)

는 층고가 낮고 이영을 이은 초가였다.

그는 괜히 한번 큰소리로 허튼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리고 반듯하게 의관을 정제했다. 갓 그늘이 그의 깡깡한 이마에 살짝 우수를 더했다. 섬돌로 내려선 그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었다. 나막신은 그가 집 안에서만 신는 신이었다. 밖에 불일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고 안에 긴한 불일이 있는 것도 아닌 듯 중문 밖에서 머뭇거렸다.(상, 14~15쪽)

전처만은 머리맡 문갑에서 광 열쇠를 더듬어 찾아 가지고 가만가만 광으로 갔다. 곳간과는 달리 사랑채에 붙은 영감 전용의 광에는 돈케, 귀한 약재, 묵은 장부 등이 정리돼 있었다. 구들장이 내려앉은 바람에 할 수 없이 작은 사랑에서 광으로 옮겼다고 소문난 돈케는 무쇠장식이 중후하고 나뭇결이 우아하고 길이가 한 길을 뻗었다.(상, 135쪽)

중문 지나 안채는 번듯한 기와집이었다. 박완서는 ‘중문 지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드높은 안채, 정결하고 반들반들하나 기가 질리지 않는 꾸밈’으로 개성 내부유한 살림집의 정갈한 치장을 설명하였다.

중문을 지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높이 솟아 있고 마당의 꾸밈이 운치스러워 볼 만했다.(중략)

드높은 안채 역시 골고루 정결하고 반들반들했지만 기가 질리게 으리으리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출하고 꼭 필요한 세간이 안식구들의 손때로 그렇게 윤이 나는 것인지 **부자 티가 나게 값비싼 세간살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층향아리가 층층이 높인 삼층 찬장이나 마루나 기둥이 한결같이 **얼굴이 비치게 반들대는 걸 보면 으리으리하기는 커녕 문득 청승맞다 싶은 적막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상, 15쪽)

안채는 전처만의 처 홍씨, 머릿방 아씨로 불리는 태임의 모친인 큰며느리 손씨, 손녀 태임이와 일꾼들이 살았다. 안방은 홍씨가, 건넌방과 머릿방은 며느리 손씨와 태임 모녀가 사용하였다.

전처만의 집처럼 여유 있는 집의 안채는 안방과 머릿방 사이에 마루가 있었다. 단순한 마루방이 아니라 대청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규모가 4칸이나 되었다.

방과 방 사이에 ‘마루’를 두는 것은 개성지역을 경계로 1) 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루가 없거나 규모가 아주 작고, 남부로 내려갈수록 마루의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마루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개성집에서 4칸 대청은 매우 큰 규모의 집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홍씨가 손녀 태임이하고 거처하는 **안방과 머릿방 사이는 사 칸 큰 마루**를 격해 있건만...(중략)(상, 16쪽)

그의 집 장롱이란 장롱은 얼굴이 비치게 윤이 났다. 그

러나 **찬장이 아무리 윤이 나봤됐자 기껏 시간대청을 비추는 데 지나지 않았다**.(상, 78쪽)



그림 2. 동해랑 전처만가의 안채와 같은 구조 및 규모인 개성 김기대씨 덕 사진(출처: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24, 도판 32)

안방은 아랫방과 윗방으로 나누어 미닫이 장지문으로 구분하였다. 태임과 종상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지만, 혼인 전까지는 엄연히 주인과 아랫사람의 관계였다. 거기에 남녀기 유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개성집의 법도에 맞게 지어진 전처만 가에서 서로 마주하는 장면을 통해 안방의 아랫방 윗방의 구분과 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안방은 송도의 민가에 내려오는 격식대로 아랫윗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사이엔 장지문 미닫이가 달려 있었다. 태임이는 으레 **아랫방 아랫목에 정좌**하고, 종상이는 큰 마루로 해서 머릿방과 마주 보고 있는 윗방으로 들어가 열어놓은 **장지문지방 밖에** 앉게 되어 있었다.(상, 2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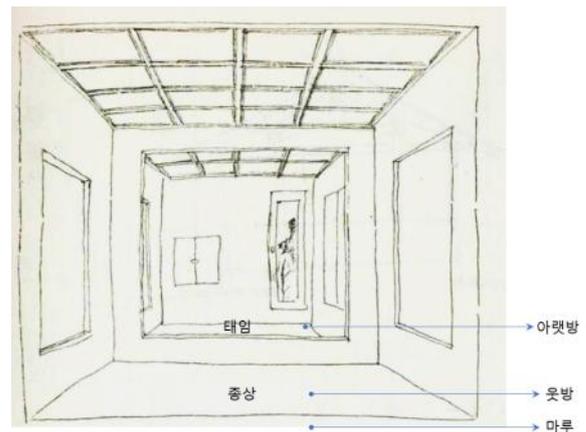


그림 3 지정 모씨 주택 마루에서 본 투시도(野村孝文, 『朝鮮と建築』, 「開城雜記(五)」, 1933, 11쪽)

실제로 1930년대 노무라가 스케치한 개성 살림집의 사례에서 아랫방 윗방으로 구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라가 스케치한 지정의 모씨(某氏) 덕은 개성 내에서 오래된 집으로 소개받은 경우였다. 이 스케치

11) 『조선의 민속전통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2013

에서는 아랫방과 옷방 사이의 장지문은 생략되어있다.

개성사람들의 마당가꾸기는 유명하였다. 특히 개성 집은 뒷마당의 꾸밈이 다른 곳보다 우선하였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치중하는 개성사람들의 성정이 집 꾸밈에 나타나는 것이다.

장독과 터줏자리가 있는 뒤란은 부엌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머릿방 뒷문 밖으로도 통했다. 장독대는 동산처럼 땅을 돋우고 각종 화초를 가꾸는 화단과 나란히 있었고 한창 떨어진 후미진 곳에 터줏자리가 있었다.(상, 102쪽)

전처만 집의 안채 뒷마당은 전처만 가의 낙조(落潮)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두 개의 우물 중 한 개는 뒤란에 있었는데, 이 우물은 나중에 태임의 어머니 손씨가 죽으면서 메워진다. 우물은 갑오경장 이전에는 함부로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우물을 집 안에 둔 점은 전처만의 부를 상징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그 우물이 메워진다는 것은 전처만 가의 재력과 영향력이 줄어들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뒤란은 머릿방과 부엌을 통해 연결되며, 머릿방에서 연결되는 굴뚝 두 개가 뒷마루와 접해 있었다. 우물, 굴뚝 2개, 장독대, 화계와 터줏자리까지 있는 뒷마당은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

안채까지 따라 들어갈 순 없고 할 수 없이 돌아나가려는 종상을 불러세우는 목소리가 있었다. 머릿방 굴뚝 모퉁이에서였다...(중략)...**머릿방 머리엔 두 개의 굴뚝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각각 굴뚝목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중략)...머릿방 굴뚝 모퉁이는 정서향이었다.** 관아가 있는 서쪽 하늘에...(중략)...(상, 248쪽)

개성집은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방, 부엌, 변소의 기본구조에 긴돌(화초석)을 두었다. 긴돌은 집안의 재력은 가늠할 수 있는 살림살이로, 전처만 정도의 재력 있는 집에서는 삼단 이상의 긴돌을 두었다. 긴돌은 화강암을 길게 다듬어서 사용하였는데 개성에서는 4간 이하의 작은 집에서도 다듬은 긴돌을 구비하였다.

아무리 게딱지 갈아도 방과 부엌과 뒷간은 갖추어야 집 구실을 하듯이 개성 집이라면 거기에다 화초석이 라는 화초 놓는 긴 돌을 하나 덧붙여야 비로서 집이 된다. 전처만의 집쯤 되면 세층이나 되는 화초석에다 연못과 귀한 관상목을 고루 갖춘 풍치 있는 마당이 조금도 분수에 어긋나는게 아니었다.(상, 15쪽)

조선시대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살림집에서 다듬은 돌을 금지하였던 점에서 볼 때, 화강암을 다듬은 긴돌을 집 안에 둔 점은 개성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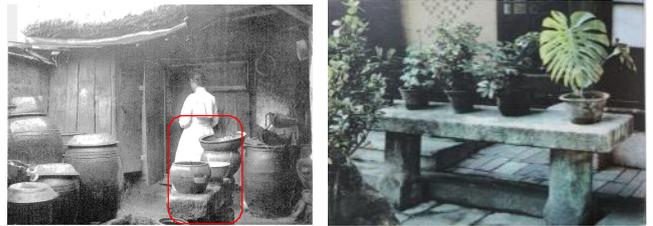


그림 4. 간이부엌 및 화초석으로 사용되는 긴돌(출처: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24/『조선의 민속전통』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전처만은 긴 돌 위에 화분을 두고 철마다 꽃이 이어지게 하였다. 연못과 귀한 관상목도 있었다. 안채에서는 간이부엌으로도 사용하였다. 소설에서 설명하는 긴돌은 일본인들의 조사보고서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확인된다. 콘와지로의 현장조사 노트에서 스케치한 긴돌에는 뚜렷한 명칭 없이 간이 부엌 혹은 화분받침대 등의 용도를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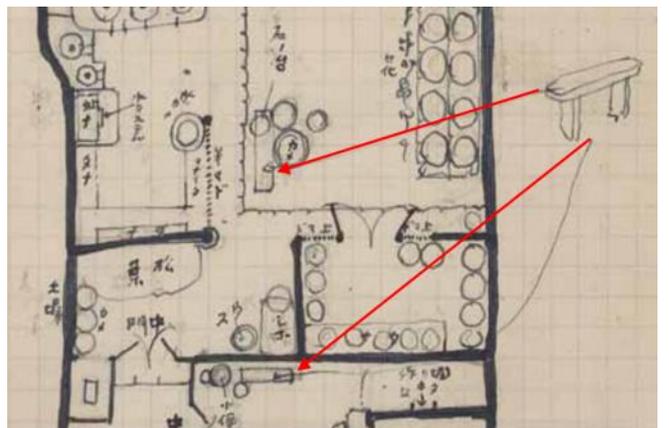


그림 5. 개성 긴돌 스케치 사례(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6, 102쪽)

개성인들의 살림살이 중 긴돌은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특별한 도구로 마당의 주요 경관 요소였다. 긴돌에 대한 설명은 개성집을 설명한 글에서는 마당 치레와 함께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들며, 연중 내내 꽃을 볼 수 있게 가꾸는 개성인들의 마당치레를 두고 남자들이 타지에 나가 있어 집안에 여성들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궁에서 경영하는 화원에 들일 기이한 화목과 조경물을 민가에서도 구하였고¹²⁾ 연산군은 개성 화원에 남아있던 석물을 한양으로 옮기려 하였을 정도였으니, 개성인들의 마당 가꾸기는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고려사』 예종8년 2월/ 『동사강목』 제8상 예종8(1113) 2월

3-2. 시골 부농 전이성의 집

전이성은 전처만의 셋째 아들로 만 간이 넘는 삼포를 물려받아 셋골에 거주하였다. 박완서는 전이성에 대하여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문에 밝은’ 인물로 묘사하였다. 사람들은 전이성은 전처만의 시전을 물려받으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전처만은 시간과 돈을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이문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삼포를 물려 주었다. 그러나 전처만의 바람과 달리, 전이성은 일본인들과 함께 삼포를 개발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아예 삼포를 정리하고 개성 시전 근처 숲전골로 이사하였다.

동해랑 전처만의 집에서 셋골을 가려면 개성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용수산을 넘어야 했다. 대략 20리 거리로 시내에서 벗어나 있지만, 만나절이면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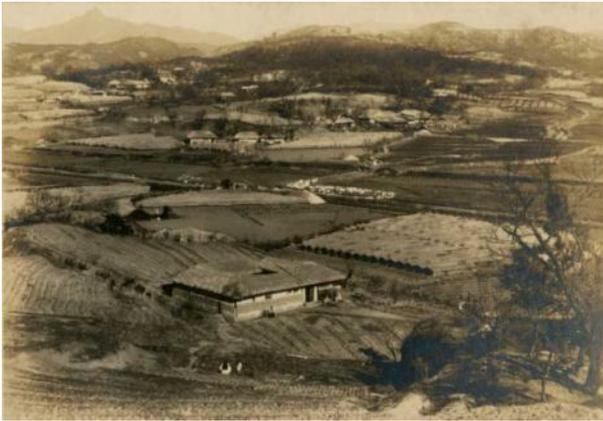


그림 6. 개성의 삼포 마을(출처: 일본문화재연구소 소장, <https://kaken.nii.ac.jp/ja>)

박완서가 묘사한 전이성의 집은 송도부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삼포를 거느린 부농의 집이다.

전이성의 집은 앞에 삼포와 독립된 가구의 고용인을 여럿 거느리고 있다. 삼포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의 오두막채는 헛간, 외양간 및 살림채로 구성된다.

전이성 집의 대문은 개성 부중에 지어진 집들과 달리 눈에 띄이는 솟을대문이었다. 이는 송도 시내 혹은 개성 시전 근처에 뽀뽀하게 위치하여 외벽이 바로 담장이 되는 도심의 집들과 달리 별도의 울타리와 행랑채를 두르며, 널찍하게 위치한 시골집의 모습이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부잣집답게 안채와 사랑채가 독립된 별채였다.

이성이네 솟을대문이 한가운데 자리잡은 마을 앞길을 그냥 지나쳐 **머슴들이 기거하는 삼포에 딸린 오두막**으로 먼저 갔다.(상, 57-58쪽)

김윤기 박사의 1920년대 와세다 대학 학부 졸업논문에는 개성 농가의 구성과 배치도가 실려있다. <그림 7>을 보면 집들이 서로 붙어있지 않으며, 대문의 위치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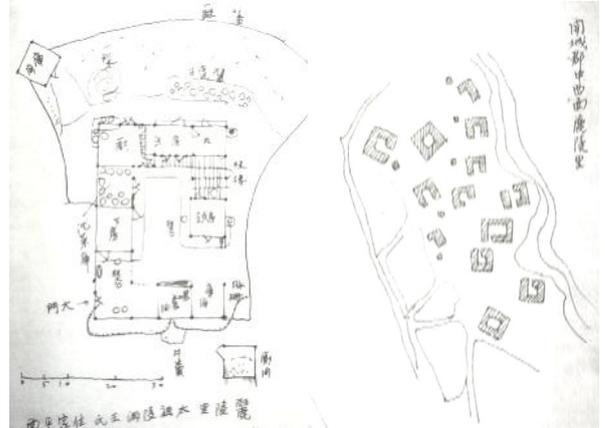


그림 7. 농가의 주택과 배치(김윤기, 와세다 대학교 학부제출논문 도 40·41)

전이성 집의 사랑채는 사랑마루가 대문 밖을 향하고 있다. 즉 사랑채에서는 행랑채 및 대문을 거치지 않고 밖으로 통할 수 있었다. 사랑채 앞으로는 삼포와 머슴 및 일꾼들의 살림채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일꾼과 삼포를 감시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개성의 농가 주택의 사례로 제시한 도면 중에는 전이성의 집처럼 사랑채에서 바로 외부로 통하는 형태가 있다.

사랑 마루는 안채로 통하는 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거칠 게 없었다.(상, 67쪽)

박완서가 살았던 개성집도 이와 같은 구조였다. 박완서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개성 시내에서 떨어진 개풍군 청교면 박적골에 있었던 자신의 집을 소개하였다. 할아버지의 거처였던 박적골 집의 사랑채의 사랑마루는 울타리 없는 바깥마당에 면해 있어서 바로 밖으로 통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¹³⁾

개성의 농가는 크고 번듯하며 안방과 부엌을 일자로 두고 윗방을 꺾어 머릿방을 두기 때문에 안방이 밝다고 하였다. 또 안방과 윗방의 뒤란 쪽으로 문이 있어 통풍도 잘 되었다. 비록 삼포는 개성 시내에 살았던

13) **사랑 마루는 울타리 없는 바깥마당에 면해 있었다.** 아래윗간으로 나누어진 사랑채는 마루도 길어져 가운뎃기둥이 있었다. 그 가운뎃기둥을 한 팔로 안거나 기대고 앉아 있으면 동구 밖으로 난 달구지길(이 저 멀리 산모퉁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16쪽)

부자들의 소유였지만, 살림집에 있어서 개성인들은 거의 자가(自家)였다. 박완서는 서울로 오기 전까지,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음을 몰랐다고 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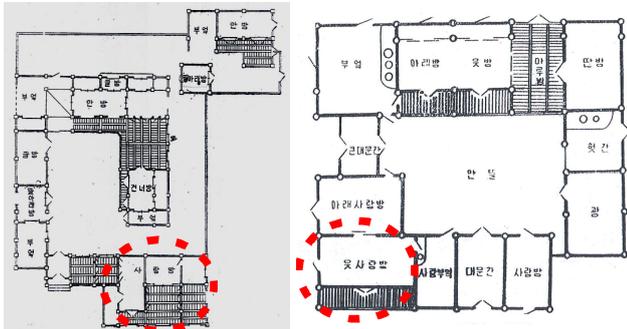


그림 8. 개성 시골 부농의 집 사례(출처: 리화선, 『조선건축』 361쪽/ 『주택과 가족 생활풍습』 65쪽)

실제로 삼포 주변의 사람들은 평균 호당 10.39칸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어 도심의 살림집에 비해 큰 가옥에 살고 있었다.¹⁵⁾ 즉 실제로 개성의 부력은 고루 분산되어 있었다.¹⁶⁾

셋골에 위치한 전이성의 집은 도심의 부자집과 달리 넓은 대지에 대문부터 화려한 부유한 농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3-3. 시전재가(在家) 전부성의 집과 도가(都家)

전처만의 둘째 아들인 전부성은 아버지로부터 청포전을 물려받았다. 수더분하고 천성이 소박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삼포를 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부러 시전 사업을 넘긴 것이다. 훗날 태임이 이 종상과 혼인하고 나면, 전부성의 아들이 동해랑집에 들어가 당주가 된다.

전부성의 집은 남대문 밖 시전에 있었다. 박완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청포전은 남대문 바깥에 위치하였다.¹⁷⁾ 그의 집은 시전 길가에 면하면서 점방과 살림집이 결합된 구조였다. 외부에서 보면 청포전 점방인데, 안으로 들어서면 살림집으로 점포가 사랑채를 겸한다. 재가(在家)는 큰 상점(대전;大塵)이 국역 의무 중 일부를 부담하고 상품 판매의 특권을 행사하는 분점을 의미하는데, 건축형태상으로는 길가에 면하여 점

포와 살림집이 결합된 건축을 뜻한다.¹⁸⁾

전처만은 점포에 머물다가 안채에 들어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태임과 아이들은 안채의 찬간에서 식사를 하였다. 즉 안채는 대청과 안방 및 부엌과 광으로만 이루어진 그리 크지 않은 전형적인 도심부 번화가의 한옥이었다.

미국의 작가이자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자였던 Jack London의 사진에는 당시 남대문 밖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남대문 밖 거리는 초가를 이은 가가가 이어진 시전과 함께 그 뒤로 기와를 이은 살림집들이 늘어서 있다.



그림 9. 개성 남대문 밖 시전(촬영: Jack London 사진집 9권, 1904)

점포는 외부에서 보면 깔끔하고 간단했다. 판매할 상품을 점포에 많이 두지 않고 도중(都中)의 창고에서 가져오는데, 이는 전형적인 개성 상인들의 상품 진열과 장사방식이다. 도중의 창고이자 시전(市塵)의 공동 사무실을 도가라고 하였다. 전국적 상권을 가졌던 송상들은 보부상과 지방의 송방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도매로 물건을 수매할 수 있는 본부가 필요했다. 이를 전(塵)이라 하며, 동업자들은 도중(都中)이라 불렀다. 도중들이 구성한 협동체제를 전계(塵契)라 하고 전계를 집행하고 유지하는 공간이 바로 도가이다.¹⁹⁾ 개성에는 품목별로 각각의 도가가 있었고, 운영방식도 각 도가마다 달리 정했다. 공통점은 창고 한 칸당 1년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 창고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 도중에서 돌아가며 창고를 지켰다.

도가의 존재는 외빈내부한 살림집을 지었던 개성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소설에서는 서울

14)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2001.2
 15) 오성, 「한말 개성지방의 호의 실태 구성」, 『성곡논총』 23, 성곡논문문화재단, 1992.6, 2133-2169쪽
 16)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축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126쪽
 17) 조선총독부, 『전계서』, 21쪽. 박완서가 소설에 소개한 개성의 경관 묘사와 건축의 위치가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18) 조병찬, 『앞의 책』, 140쪽.
 19) 도가 관련 내용은 「조선 후기 시전(市塵)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65-99쪽 및 배제인, 「도가 라는 것」, 『개성』, 개성인회, 1970을 참고

의 종로, 이현의 시장처럼 물건을 너넉하게 진열하지 않는 개성상인들의 장사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²⁰⁾

송방들은 많은 물자를 주로 도가에 쟁여두고 가계에 요란하게 진열하기는 꺼리는 것과는 달리 한양에선 모든 물건이 사람들 눈을 끌게 내걸려 서로 그 자태와 풍성한 양을 겨루고 있었다.

살림집을 지을 때, **아무리 부자라도 외빈내부를 원칙으로 삼아 안채에는 기와를 올려도 사랑채는 조출한 초가로 짓듯이 거상일수록 물건은 도가 창고에 쟁여 놓고 거래는 사랑에서 어음으로 하면 되는 걸로 알았지 가게치레는 소홀하거나 솟제 가게 없이도 장사만 잘했다.**(상, 211쪽)

도가는 창고와 공동사무실로 나뉘는데 장방형 건물로 둘러싸인 창고 가운데에 공동사무실이 있었다. 도가의 정문 좌우로부터 줄행랑 식으로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창고이다. 창고의 보칸은 2칸 이상으로 마루와 마루 뒤로 한 두 칸의 방이 있었다. 마루는 창호 없이 기둥만 있고 방은 창고 용도로 보안시설을 밖에서 갖추었다.

창고의 크기와 개수 및 마루의 높이 등은 보관하는 물품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중 청포전 도방 사례를 보면, 방은 총 28방(房)인데 그중 24방만 창고로 사용하며 1년에 10원의 대여료를 받았다.

『미망』에서는 태임의 남편 이종상이 개성의 도가를 이용하여 은행업을 구상하기도 한다. 도가 사무실의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다음 두 장의 사진에서 누마루와 결합한 사무실과 주변에 줄행랑 창고가 있는 도가의 일부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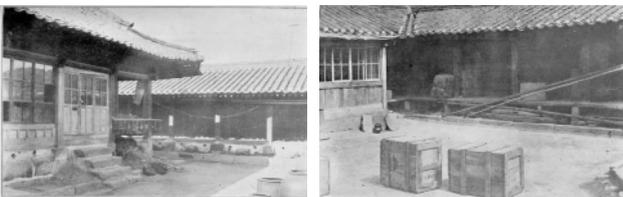


그림 10. 개성 도가(출처: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 11집, 『朝鮮人の商業』, 1925년, 29쪽, 31쪽)

사진상의 도가는 이미 창호지 대신 유리문을 설치하였다. 누마루를 설치하여 줄행랑 창고를 감시하는 도가 사무실은 서울 집과 같이 기둥 밑 고막이를 막아 어느 정도 변형된 상황이다. 다른 사진은 사무실과 줄행랑 창고의 지붕이 이어져 있으며, 줄행랑 창고 고막

20) 훗날 이종상은 이러한 장사방식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

이는 막지 않고 전면에 기둥 밖으로 면마루를 설치한 모습이다.

3-4. 서민 주거 해주택과 진동열 선생의 집

개성의 서민 이하 주택은 『미망』의 전처만과 젊은 시절 정을 나눈 해주택의 집과 한영학교 교사였던 진동열 선생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해주택의 집은 고려 성종의 무덤이 있는 강릉(康陵) 골에 위치한 외딴집이었다. 대문채나 담장도 없이 사립문을 지나면 바로 봉당과 방이었다. 방은 장지로 옷방을 구획하였고 대청과 마루방도 없는 4칸 이하의 1자집이다. 실제로 1899년 개성 남부 도조리 호적을 보면, 도심을 벗어난 소규모 살림집은 대부분 4칸 이하의 초가였으며 모두 자가였다. 해주택의 집은 이영을 이은 작은 집이지만, 개성집 어디에나 있는 화단과 긴 돌이 있었다. 해주택은 긴돌 위에 치자나무를 두었고 문전옥답에 주변에는 수수 이삭과 호박넝쿨, 배추밭 등이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고 부엌 근처에 모란꽃, 치자나무 분 등을 심어 계절마다 피는 꽃을 볼 수 있었다. 박완서의 묘사를 통해 개성의 4칸 이하 작은 집도 마당을 가꾸는 데 공을 들였고, 집 앞에 작은 전답이 있어 호사스럽지는 않아도 크게 곤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주택은 부지런히 살림을 늘려 5년 만에 천간 가까운 삼포를 경영할 수 있었다.



그림 11. 개성 시골 외딴집 사례(출처: 일본문화재연구소)

강릉골에서도 외딴 초가삼간은 불빛도 인기척도 없이 괴괴했지만 어둠에 익은 눈에 해주택이 즐겨 가꾸는 모란꽃이 피어나는 게 보였고, **긴 돌 위에 치자나무 분**도 보였다. 벌써 치자꽃이 피었을 리 없건만 그의 코는 앞질러 치자꽃 향기를 맡은 것처럼 느꼈고...(중략)...사립문은 열린 채였지만 **봉당으로 난 방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다...(중략)...여자는 장지문을 가리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자를 안고 발로 장지문을 밀었다. 옷방 삿자리 바닥**에 여자를 눕히고 우선 물에 젖은 행전부터 풀었다.(상, 68쪽)

해주택의 집이 농가의 작은 집이라면, 진동열 선생택은 도심 외곽의 오막살이 사례를 보여준다. 개성 한영학교 교사였던 진동열 선생은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텃밭, 사랑채와 후원까지 있었던 대물림받은 넓은 집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처분하고 간도로 떠났다. 부인과 남매는 빈촌이었던 남부의 철길 건너, 고남문(古南門) 밖으로 이사하였다. 이사한 집은 사랑채 없이 안방과 머릿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된 ㄱ자 고패집이었다. 아들은 헛간을 개조한 아랫방을 사용하다가 아버지를 따라 간도로 떠났다. 이후 아랫방은 당시 개성에서 유행하였던 양말 공장 붐과 함께 직조기를 두고 양말을 짜는 여인들의 가내 부업공간이 되었다.

진동열 선생택은 도심부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한옥의 특징대로 집의 외벽이 그대로 가로 경관이 되는 아주 좁은 대지에 자리한 집이었다.

진동열 선생택은 남부 철길 건너 고남문 밖 빈촌에 있었다. **사랑채도 없이 겨우 안방 머릿방 마루 부엌을 갖춘 ㄱ자집** 봉당에 흐드러지게 핀 유도화가 인상적이었다...(중략) **골목 쪽으로 난 조그만 창 밑**에다 양말 기계를 설치하고 실패에서 풀린 실이 위로 올라갔다 땡겨 내려오도록 들창 위에다 못을 박고 장치를 했다. (『미망』 하, 65~66쪽)

4. 결론

그동안 개성 한옥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조사와 해방 이후 북한의 연구에 의존하였다. 기존 조사 또한 개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없이 스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박완서의 소설 『미망』 속 한옥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소설 『미망』 속에 묘사된 살림집은 일반 건축 조사와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부재의 규격, 공간의 규모나 건축의 구조와 같은 물리적 정보는 아니지만, 건축가와 다른 관점에서 근대기 개성의 한옥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1920~30년대 일본인 건축가들의 개성 한옥 조사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망』 속 개성 한옥들은 도심과 삼포 농가에 위치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살림집을 기록하고 있다. 부잣집으로 대표되는 동해랑에 위치한

거상 전처만의 집, 시전제가 전부성의 집과 도가 그리고 시골의 부농의 주택인 전이성의 집과 외딴곳의 오막살이인 해주택의 집까지 다양한 계층의 집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성 도심 근교의 살림집은 바깥채는 낮고 소박하게, 안채는 높고 정갈하게 만들고 꾸몄다. 개성 큰 집도 소박한 대문을 지나면 중문부터 들어갈수록 깔끔하고 화려하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인에게 더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

셋째, 삼포가 있는 교외에 위치하는 시골의 집은 도심과 다르다. 멀리서도 눈에 띄이는 솟을대문, 대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통하는 독립된 사랑채는 도심과 달리 넓은 삼포 운영을 위해 일꾼들을 거느리기 쉬운 구조로 볼 수 있다.

넷째,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질반질한 기둥과 마루, 마루 밑을 빼곡히 채운 뿔목, 긴돌 부엌, 화계의 구성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살림살이는 건축가들의 조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개성에서 삶을 영위한 박완서의 묘사는 이러한 도구들의 정확한 쓰임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현지 조사가 연구가 어렵고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성을 묘사한 소설과 회고를 통해 개성 한옥을 고찰한 것이다. 『미망』 속 배경이 되는 한옥들은 1920~30년대 조사된 보고서의 내용과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기입된 긴돌, 눈에 띄이지 않는 납작대문, 고패집과 뽕리집의 모습과 각 실의 구성 등 건축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록한 스케치와 미망 속 한옥의 구성에 부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북한의 옛집』, 아담북스, 2012
2. 개성인회, 『개성』, 예술춘추사, 1970
3. 경기문화재단,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 성과보고서』, (재)경기문화재단, 2012
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개성한옥_사진으로 보는 북한 개성한옥』, (재)경기문화재단, 2021
5. 김버들·이중서, 「조선 전기 맞배지교형 건축의 유형과 전파」,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집, 건축역사학회, 2018.4
6. 김버들·조정식, 「박자정의 궁궐 건축 감역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6권 1호, 건축역사학회, 2017.3

52 논문

7. 리화선, 『조선건축사』, 발언, 1993.10
8. 박완서, 『미망(상·하)』, 세계사, 1996
9.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10.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2001.2
11. 서울역사박물관, 『콘와지로 필드노트』, 2016
12. 송경록, 『개성이야기』, 푸른숲, 2000
13.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2012,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오성,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 實態: 인구와 가옥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3, 성곡언론문화재단, 1992.6
15. 이왕기,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발언, 1994
16. 정수인·한동수, 「20세기 초 한성부 종로 주변 시전의 배치구조와 공간 변화」, 『건축역사연구』 30권 5호, 건축역사학회 2021.10
17. 조병찬, 『한국시장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18. 조선총독부,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1冊_民家』, 1924, 국회도서관 소장자료검색 전체 (nanet.go.kr)
19. 조정식, 「한국남부지방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1호, 1995.1
20. 野村孝文, 「開城雜記(五)」, 『朝鮮と建築』, 第十二輯, 第二號, 朝鮮建築會, 1933,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검색 결과 (nl.go.kr)
21.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朝鮮寫眞繪はがき (nichibun.ac.jp)
22. 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itkc.or.kr)
23. 국사편찬위원회 고려개경지리정보 (history.go.kr)
24. Korea - Jack London Photographs, Korea, Vol.9 (<https://www.huntington.org>)

본 논문은 2021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출판한 『개성 한옥』 중 「소설 속 개성 한옥」의 일부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김윤기 박사님의 졸업논문을 제공해 주신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님과 수원농촌진흥청 소장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동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접수(2022. 05. 23)

수정(1차: 2022. 06. 23)

게재확정(2022. 06. 30)